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1>



한사람이 병들면 사회가 병든다

무서운 세상이다. 엽기 소설이나 공포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공포가 엄습해 오고 정신이 번쩍 든다. 20여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다. 짧은 기간에 20여명을 연쇄살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의 최대 희생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로서 심수명 실종되었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유영철이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의 이웃도 그의 살인 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전형적인 도시인의 태도이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간섭받기도 싫고 이웃의 일에 간여하기도 싫은 것이다.

최근 발생하는 살인 사건은 개인적인 원인이냐 급진 때문이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사회 일반에 투영해 복수한다는 것이다. 유영철은 현대 한국인의 의식 상태의 한 단면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죄가

때 치유 받지 못한 환자가 늘어나면 날수록 그만큼 더 빨리 병균을 전염시켜 건강하던 사람도 병에 걸리고 말 것이다. 병든 사회에 살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결국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유영철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과 감정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병든 감정을 살인적으로 연철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유영철의 연쇄살인행각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글들이 적잖이 인터넷 상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가 질병에 걸려 있는 환자들을 방치해 두면 제2, 제3의 유영철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만, 나의 가족만 행복하기를 바라고 주위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행의 병균을 키우는 일이다. 모든 현상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한 갈래가 썩어 넘어지면 다른 갈래도 넘어진다. 불행에 병든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면 건강한 사람도 쓰러지게 되어 있다.

<천륜성왕수행경>에 이상적인 왕이 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에 다음의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나라에 외로운 자와 늙은이가 있거든 마땅

모든 현상 숱한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관심을 쏟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마땅히 자신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고, 인과공보의 가르침에 의해 고통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유영철의 범행을 계기로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기(緣起)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숱한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하고 소멸한다. <잡아할경> 노경(廣經)에 연기에 관한 비유가 있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를 빈 땅에 세울 때 서로 서로 의지해야 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일 그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다 빼버리면 하나도 또한 서지 못하게 되니, 서로서로 의지해야 서게 되는 것이다."

갈대단 비유에서 부처님은 상의성(相依性)을 가르치고 있다. 나와 남은 두 개의 갈대단과 같아서 남의 존재 없이는 결코 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상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 행복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서로 고통을 안는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개개인이 모두 건강해야 사회라는 몸이 건강할 수 있다.

한 개인이 병이 들었는데도 치유받지 못하면 그 병균은 곧 바로 주위 사람에게 전염된다. 제

히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공공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험대로 거절하지 말아야 하는니라." 부처님께서는 만약 이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악행이 일어난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로운 이들과 노인들이 구제되지 못했다, 신분이 낮고 빈궁한 사람들에게는 그 배움이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갈수록 빈곤해져 드디어 서로 침범하고 약탈하여 도둑이 매우 심하게 증가했다. 이에 백성들은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해 마침내 칼과 활 따위의 무기를 만들어 서로 침노하고 잔인하게 해치며 공격하고 약탈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어 사회적 폭력으로 난무하게 된다.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행복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욱 더 보일 때이다. 아울러 걸보기에 화려한 의상에 정신을 잃지 말고 내면의 건강에 힘을 쏟아야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도명 스님이 '도심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에서 28년간 펼쳐온 포교인생을 순회하고 있다.



도명 스님

(고양시 덕양사 주지)

"마음의 맛을 아는 게 수행이지. 마음으로 맛을 보면 냉수도 곰팡이 되고, 김치도 갈바가 되는 법이지."

경기 고양시 덕양사 주지 도명 스님은 '마음의 맛(心味)'을 알아가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란 말씀부터 하셨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用心)'에 따라 수행이 깊어질 수도, 얕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도들은 내가 반찬도 없이 밥을 먹는다고 하면 야단이야. '스님, 반찬은 뭐해 드세요?' 라고 물어



마음으로 맛을 봐야 한다는 도명 스님. 그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면, 난 '아침마다 곰팡이 밥 받아 먹는다'고 말하지. 그럼 신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스님이 진짜로 뭐 감춰두고 먹는 줄 알더거든. 그런데 내가 냉수에 밥을 받아먹는 걸 보고는 놀라거든. 마음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할 하는 거야. '이건 물이 아니라 곰팡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곰팡이거야. 김치도 마찬가지지. '이건 갈바다' 생각하면 갈바니 거지 뭐. 부처님 말씀대로 뭐든지 마음이 일으키는 대로 보고 맛을 느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참 맛을 알아가는 게 수행이 아니겠어?"

스님의 이러한 생각은 하루 일과에서부터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하루 세 끼를 직접 짓고, 끼니도 냉수에 밥 받아 김치 한 조각 먹는 것이 전부다. 수행은 청빈한 삶에서 비로소 나온다는 스님의 수행

공양주도 시봉 상좌도 없이 생수에 밥말아 세끼 해결

론 때문이다. 그래서 덕양사에는 공양주가 없다. 시봉하는 상좌도 없다.

"출가 수행자는 혼자 알아서 다 해야 해. 왜 남에게 시킬 생각을 해.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들도 하기 싫은 법이야. 그 이치를 왜 몰라?"

스님께 지난 60년 경남 밀양에 한 토굴에서 7년간 '장좌불와' 했던 이야기를 물었다.

"젊은 나이의 헬기로 '도인이 되었다'는 서원을

세웠지. 잠도 안자고, 음식도 앓고 치열하게 화두에 매달렸어. 그러다 참선을 한다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나도 모르게 쓰러졌어. 원래 화두를 잡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는 상태로 전진해가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 그것을 참선해가면서 머뭇머뭇 들어간다고 해,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끊어져버려거든. 그러다 쓰러졌어. 그때 느꼈어, '참선이 참으로 무서운 거구나'. '젊은 헬기에 너무도 쉽게 생각했구나' 하고 말이지."

이어 또 한 가지의 수행일화를 말씀하셨다. 토굴에서 수행하다 통도사 극락암 조실 경봉 스님에게 장좌불와 수행을 자랑하다 혼쫓이 난 사연이다.

"경봉 스님을 만나러가서 자랑삼아 '조그만 토굴을 지어 산다'고 말했다지. 그런데 경봉 스님이 겁 없는 젊은 수좌인 내게 한 마디를 던지시더군요. '도명, 선방은 산에만 있는 게 아니네. 시장장터에도 있고, 절길 옆 오두막집에도 있고, 쪽포에도 선방은

사람마다 근기·성향 다르니 본인에 맞는 수행법 골라야

있네. 내가 앉은 자리가 선방인 것을 왜 모르나?' 라고 말이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쓰였지. 경봉 스님이 한 말씀 더 하시더군요. '참선만 한다고 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네. 불자들을 위해 포교하는 것이 더 큰 수행이네'라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꿨지. 산에서 내려와야겠다고 말이지."

경봉 스님의 경책은 7년간의 토굴생활을 접고 골장 세간으로 내려오게 했다. 그리고 도명 스님의 지칠 줄 모르는 포교는 시작됐다.

"수행이 포교고 포교가 곧 수행이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행도 포교도 잘 할 수 있거든. 선(禪)이라는 게 마음공부지 특별한 게 있나. 그렇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잘 배부는 게 수행이고 포교가 아니겠어.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어. 다 내 마음 안에 있어. 참선수행도 마찬가지로. 꼭 앉아서 도를 깨쳐야만 참공부인가. 속세에 나와서 중생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수행이지. 다를 것 없어."

스님은 28년 전 이곳 고양시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이 들었다. 남의 발을 빌려 빌려 하우스 법당을 지어 부처님을 모셨다. 고양시의 척박한 불교세는 출가사문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절길 옆이라 마치 기차가 법당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 빌려하우스에 부처님을 모신 게 최송스러워 부처님께 절하며 '3년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고양사암연합회·자원봉사단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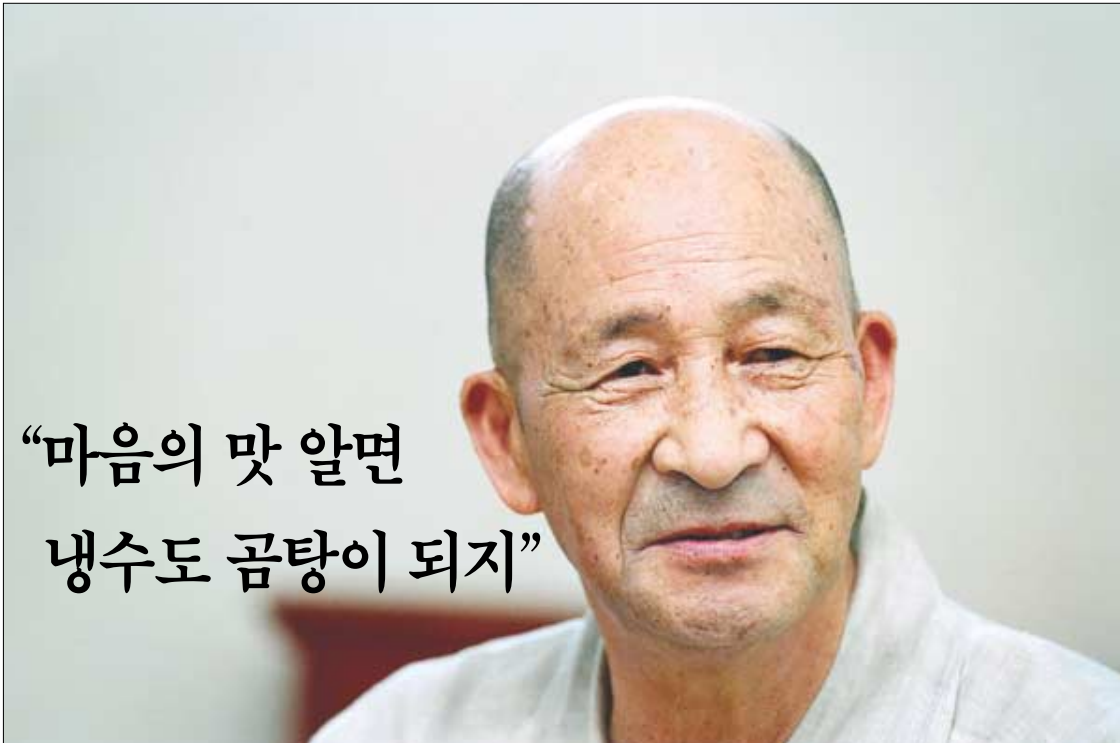
도명(道明) 스님은 출가한 지 50년 이 넘었다. 세

많은 69세. 합천 해인사에서 용산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남해 보리암, 순천 선암사, 광양 상백운암, 밀양 영천암, 대전 신광사, 부산 금정사 등 전국의 선방을 돌며 활자할 활구침선을 위한 수좌로 살았다. 한 때는 토굴에 손수 짓고 7년간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에 매달렸다.

현재 스님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고양시사암연합회장과 자원봉사단체 천수천안봉사단 이사장 등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과 자원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다. 천수천안봉사단의 경우, 자원봉사교육 수료자 5백여 명을 배출하는 등 '자원봉사도 수행'이란 가르침을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불교호스피스' 교육 강좌도 마련해 자원봉사의 전문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031)672-8067

Advertisement for 'Shan Yao' (山藥) medicine.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plant roo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like diabetes, hypertension, and kidney issu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Simmadang (심마당).

Advertisement for 'Wonil Calendar' (원일카렌다). Promotes a 2005 calendar with a 'Best Product' award. Features a large '카렌다' (Calendar) graphic and text about the quality and variety of the calendar.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Wonil Culture House (원일문화사).



# “마음의 맛 알면 냉수도 곰탕이 되지”

교회에 가까운 나이에도 하루 세끼를 손수 지어 드시는 도명 스님. 출가수행자는 평생 수행의 고삐를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널리 알려야겠다는 일념뿐이었지.” 스님은 그간 포교하면서 가졌던 마음자세도 말씀하셨다.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겠다’는 애뜻한 마음으로 포교하다 보면 그 절절한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요즘 재가불자들 사이에 불교 있는 수행 열풍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 스승에게 점검받지 않으면 망상 키우고 이상만 커져

“사람마다 다 근기와 성향이 다르니, 본인 자신이 마음 길을 잘 잡아 풀고 나갈 수 있는 수행법을 골라야 해. 남이 이것 좋다고 권한다고 무작정 따라 하면 안 돼. 가령 절 수행을 한다 치면, 법당에 와서 한 배를 해도 간절히 해야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형식적으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삼천배를 해도 소용이 없어. 때문에 내 마음자리가 중요해. 일념으로 절만 해야지, ‘현관 스위치를 끄고 왔나, 가스불은 잠고고 왔나’ 하고 그런 마음자세로 부처님한테 절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정성이 모아지겠어? 그런 마음으로는 한 배를 해도 하나도 내 것이 안 돼. 오로지 부처님한테 정성을 들여야 조금이라도 깨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 알겠어?”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을 선택할 때 주의점도 일러줬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 성격이 찬찬한 사람은 참선 공부기 적격이고, 분주한 사람은 염불 수행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 하다못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공부야. 구정물에 담겨 있는 냄비 먹은 그

릇을 내 손을 넣어서 깨끗이 씻는 것도 수행이야. 처처에 공부할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은 도외시키고, 이게 좋은 수행법이 저게 더 좋으니 하고 분별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스님은 이어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할 때 유의할 점도 말씀했다. 스님들한테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큰스님에게 화두를 받는다든지, 스님들과 같이 앉아서 단 몇 개월이라도 공부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승에게 점검받지 않은 채 혼자 참선하면, 망상과 이상만 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두를 잡아 한 길이 잡혀야 선을 하는 보람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있으면 망상만 나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어. 머리만 복잡해지지, 그러면 공부가 되질 않아. 재가불자들은 반드시 스님에게 의문고, 화두를 받은 다음에는 집에 서든 직장서든 끊어짐 없이 화두를 잡아야 돼.”

중생들은 일상에서 화를 자주 낸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력 발력 화가 난다. 그 마음자리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스님은 참선에 그 해결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참선만한 것이 없어. 화를 가라앉히는 게 바로 참선이야. 문제는 얼마만큼 어떻게 가라앉히는가 이겠지. 참선을 하다보면 선방에서 갑자기 뛰쳐나가는 스님들이 있지, 그건 망상이 자꾸 떠오르다보면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돼. 목탁을 들고 정근을 하다보면, 출가하기 이전의 일들이 마치 영화필름처럼 지나가. 어떤 게 지나가는 줄 알아? 작한 일들은 잘 안 떠오르고, 남들한테 나쁘게 한 것만 자꾸 나와, 오죽하면 내가 목탁을 안치고 머리를 두드릴 정도였으니까. 하도 괴로운 것들이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 입으로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스쳐지나가는 것 때문에 머릿속 생각이 정근에 안

모아지고 괴로운 생각들에 모여져서, 그렇게 괴로웠지. 출가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기억이 그거야. 나쁜 짓들만 생각나고, 착한 행동은 안 떠오르니, 그래서 참선한다는 게 힘든 거야. 재가불자들도 마찬가지지.”

스님은 특히 불자들에게 ‘효도’를 강조했다. ‘부모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을 섬길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스님이 되어서 한 가지 깨친 게 있어요. 속가 어머니는 한겨번에 아버지, 큰 아들을 잃었어. 어머니는 하도 기가차서 여기저기에 내 수명도 짧은지 물으셨어. 그리고 3년 후 난 해인사에서 스님이 됐지. ‘나 죽기 전에 출가하지 말고 죽거든 가라’던 어머니의 애원을 뒤로 한 채로 말이야. 그런데 후회가 되더군. 울다 지쳐 잠드신 어머니를 두고 도망쳐

## 부모를 위하지 않는 사람 부처님 섬길 자격 없어

나온 것이 말이야. 어머니는 7년 더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하더군. 그때 ‘야! 내가 잘못했구나. 어머니를 모시다가 7년 후에 출분히 스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참회를 했어.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 ‘부모를 위함이 나를 위함이다’라는 가르침 말이야. 효도해, 살아계실 때.”

출가사문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거기서 쏟아내는 종교, 도명 스님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처도, 효자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마음의 맛’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古稱)에 가까운 노스님이 세속을 사는 불자들에게 알려준 삶의 지혜였다.

정리=김철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진각 스님의

## 스님이야기

종교 스님

〈화엄경〉의 ‘입법계품’은 맨 끝이 ‘보현행원품’이다. 선재가 보현 보살을 최후로 만나서 보현행원을 듣는 것은 결국 가르침과 배움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가르치는 것도 실천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실천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들어야 실천을 통해서만 자유로운 즉 궁극의 평화로운 해탈을 구현할 수 있다.

인간 해탈을 구현하는 실천덕목을 초기불교는 팔정도(八正道)라 하고, 대승불교는 육바라밀이라 하고, 화엄에서는 보현행원(普賢行願)이라 한다.

사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제방에서는 화두를 들고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좌복 위에 몸을 맡기면서 영당이가 짓무르도록 산문

위치한 산내 약수암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서 정신적인 휴식이나 몸이 불편해서 휴양이 필요한 스님들을 위해서 내놓았다. 이렇듯 스님은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깃들었다.

산내암자의 노(老)비구니스님의 생신은 물론이고, 스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인사는 꼬박꼬박 찾아 챙긴다. 요즘은 행사교육원에 입학하기 전에 분사 단위로 말사 행사들을 분사에서 함께 예비교육을 시킨다. 그림 때 종교 스님은, 상좌될 행자가 교육을 받고 있으면 분사 행사실에 피교육자 신분을 고려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만큼 대중공양을 낸다. 이정도 주변을 사려깊게 배려하는 마음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숨이 차도록 너스레를 피워야만 본인이 만족할 터인데, 종교 스님은 원만하고 고운 상호처법 그저 조용하게 지낼 뿐이다.

평생 선원을 참방하면서 화두를 든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육심내지 않으며, 그 욕심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성내지 않으며, 그것들이 다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서



그림·문병성

## 보시 좋아하고 타인 깊이 배려 따르는 신도들도 스님 닮아야

이 세 가지 특징이 공부에 장애됨을 알고 좌복에 앉아 묵묵히 세월의 무게를 감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모든 사물과 행위 하나 하나를 객관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견해가 생긴다.

내가 구해에서 조그마한 사람을 창건해서 농촌포교에 열중하고 있을 즈음 사찰 신도회를 조직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접촉해 보면 천은사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이 많았다. 비록 우리 절에서 함께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재적사찰을 두고 활동한다는 것은 사찰이나 신도, 스님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지금도 길에서 그 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낸다. 사찰신도회가 조직되면 주지스님이 바뀌어도 후임 주지스님과 자연스레 연결됨으로 해서 신도회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지속성을 갖게 된다.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해서 상생하는 화합이 이루어진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보시이다. 그런 면에서 종교 스님은 보시가 생활화되어 있는 스님이다. 스님이 그렇다 보니 스님을 따르는 신도들도 보시하기를 좋아한다. 얼마 전에는 한 신도의 보시로 불교의 불모지라는 전남 광주시 한복판에 ‘광제사’라는 사찰을 창건해서 화엄사 말사로 등록했다. 사찰을 하나 창건하기도 쉽지 않지만 재산 전부를 종단에 등록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욕심을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덜 수만 있다면 그래도 서로를 복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다. 종교 스님의 복력이 무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었으면 한다. ■해인사 원담암

##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지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가 풍부하며, 건강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 태국에서 영아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장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육법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전도를 위한 49개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점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화 : 031)541-1417 / 팩스 : 031)541-1419 충남 및 대리점 모집